

경북대소식 2004.9.9

- 언론스크랩**
- 2.. 보편주의적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 3.. 제6회 경북대 패션 페스티벌 'E-Code' 개최
 - 4.. 신임 보직 교수 임명
 - 5.. 본교, 산학협력 기능 강화해 본부조직 개편
 - 6.. 경상대학, 학생들 위한 열린 공간 「경상리운지」 개소
 - 7.. 「선물·옵션의 기초와 거래전략」 외
 - 7~8.. 국어심의회 위원 위촉 외
 - 9.. 학회 개정 외
 - 10~11.. 200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공고
 - 12.. 2004. 8. 16~2004. 8. 31 기탁자 명단
- 출간·치상**
- 인사·동정
알립니다
- 발전기금**

보편주의적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전현수 교수
(인문대학 사학과)

우리 사회는 갈수록 역사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리고 있다.

안으로는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대의 「과거청산」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밖으로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역사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과는 오래 전부터 우익 역사교과서의 식민지배 미화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최근에는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위치 지우는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분쟁으로 한중 두 나라의 선린 우호 관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분쟁은 그 어떤 역사분쟁보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과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은 역사학계의 학문적 비판을 넘어 역사교사들의 「삼보 일배」 항의 시위와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내 위원회 설치가 검토되고 있고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은 일제히 중국 특집을 마련하여 중국의 폐권주의를 비판하며 중국 경제론을 살피고 있다. 고구려사를 중국이 빼앗아간다면 우리는 고조선사도 밟해사도 잊게 되며, 이것은 바로 한민족의 뿌리를 송무리째 잊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고구려 역사분쟁이 우리의 일상을 점령해 버린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것처럼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일어날지 모를 중국 동북 지역 조선족 사회의 등묘와 한중 양국간의 영토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의 시도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를 중국사의 공기적 범주로 규정하고 국민국가의 주권개념을 먼저 그대로 투영하는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을 특징으로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주변국의 역사 기억과 역사 주권을 부정하고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폐권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폐권주의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경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호혜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고구려사 역사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한민족의 역사를 빼앗기는 민족정체성의 위기를 운운하며 민족의 얼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대학의 국사 과목도 교양 필수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구려사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고구려 연구재단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국사 교육을 강화해서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 중국의 역사왜곡으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는 민족주의적 주장이 흥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고구려 역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는 민족주의적 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을 시정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한중 양국간에 고구려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화해시키고 중국의 폐권적인 역사인식을 시정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대립적인 역사인식의 화해를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이에 맞서 고구려사를 한국사의 일부로만 파악하려는 우리의 역사인식 모두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의 과거가 자기 민족만의 독점적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야말로 고구려 역사분쟁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철에하게 충돌하는 역사인식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과거는 외국」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려의 경우 한반도와 만주, 대륙의 서로 다른 문화와 종족이 융합되어 만들어간 역동성과 다양성의 역사 공동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한국사나 중국사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고구려인들의 역사로 복권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사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만의 민족주의적 역사교육을 강화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열린 시야로 고구려사를 보는 능력을 기르는 보편주의적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본 코너의 기고문을 반깁니다

기고문을 보내실 학내 구성원은 관련 전공 혹은 대학 문화·대학 발전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대외협력홍보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포커스

필리핀 국립대 교수 교육 위한 협약체결



(1면에 이어) 김달웅 총장과 영진전문대 최달곤 총장은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 고등교육위원회(위원장 Dr. Carlito S. Puno)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은 이 날 협약 체결에 따라 필리핀 국립대 교수

본교, 중국 위해시와 활발한 교류 지속



우리 대학은 지난 8월 25일 중국 위해시에 위치한 산동대학 위해 분교(총장 Shenghao Han)와 학술·학생 교류 약해각서를 교환했다. 산동대학 위해 분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학대학(단과대학)이 설치된 곳으로 현재 「한국학과」와 「한국어학과」,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의 산동대학 위해 분교에는 전공과 교양과목을

제6회 경북대 패션 페스티벌 'E-Code'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3일, 유통단지 내 한국패션센터(FCK)에서 「E-CODE」(ECO CODE의 줄임말)를 주제로 한 「제6회 경북대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새로운 삶의 트렌드인 웰빙(well-being)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패션 작품을 대거 선보인 이 날 행사에서는 천연소재를 주로 사용한 의류학과 학생들의 실험적인 작품 100여점이 무대에 올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패션 페스티벌은 이어 영진전문대학 패션디자인 학과의 작품을 선보인 후 「천연염색 퍼포먼스」로 막을 내렸다. 우리 대학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표출하는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패션 페스티벌은 지역 패션 산업체에 새로운 패션동향을 제안하고, 미래 패션계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패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고 있다.



대구은행, 본교에 발전기금 전달

지난 31일 우리 대학 종장실에서 김달웅 총장과 김극년 대구은행장, 박성동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은행측의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 날 대구은행은 짚은 예비 디자이너들의 깊진 무대인 우리 대학 패션 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2004년도 전반기 정년 퇴임식

지난 31일 오전 11시부터 본부 주관으로 '2004학년도 전반기 정년퇴임식'이 복현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정년(명예)퇴임을 맞은 교수는 한석종 교수 등 총 19명이며, 올해부터는 행사의 규모가 간소화되고, 본부 주관 행사와 단과대학 주관행사로 이원화되어 시행되었다. 정년(명예)퇴임 교수들의 수상훈장 및 표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이름 | 소속 | 수상 | 구분 | 이름 | 소속 | 수상 |
|------|-----|----------|--------|------|----------|------|--------|
| 정년퇴임 | 한석종 | 인문대학 | 대통령 표창 | 정년퇴임 | 이병휴 | 사범대학 | 황조근정훈장 |
| " | 김광순 | " | " | " | 김종택 | " | 황조근정훈장 |
| " | 권택룡 | " | " | " | 김한식 | " | 황조근정훈장 |
| " | 권순철 | 경상대학 | 황조근정훈장 | " | 이윤종 | " | 황조근정훈장 |
| " | 강문영 | 공과대학 | 황조근정훈장 | " | 박점희 | 의과대학 | 황조근정훈장 |
| " | 유갑종 | " | " | " | 장세국 | " | 황조근정훈장 |
| " | 최정 | 농업생명과학대학 | 황조근정훈장 | " | 시게나가 요시오 | " | 옥조근정훈장 |
| " | 이동진 | 예술대학 | 옥조근정훈장 | " | 문무홍 | " | 황조근정훈장 |
| " | 신영길 | 사범대학 | 황조근정훈장 | | | | |

신임 보직 교수 임명

장지상 기획처장 등 우리 대학 주요 보직자 임명이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되었다. 신임 보직자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장지상 기획처장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1956. 3 생
1978. 2 서울대 경제학과
1984. 2 서울대 석사
1992. 8 서울대 박사
1986. 3~현재 경북대 전임강사-교수
1998. 9~2001. 2 경북대 기획연구실 기획부실장

권선국 산학협력단장 (경상대학 경영학부)



1958. 5 생
1981. 2 연세대 경영학과
1983. 2 연세대 석사
1984. 2 Univ. of Colorado 석사
1989. 7 Univ. of Oklahoma 박사
1995. 7~현재 경북대 부교수-교수

김효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법과대학 법학부)



1959. 8 생
1982. 2 경북대 법학과
1985. 2 경북대 석사
1993. 2 경북대 박사
1998. 3~2002. 2 위덕대학교 조교수
2002. 3~현재 경북대 조교수

김기현 인문대학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50. 6 생
1976. 2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1984. 2 경북대 석사
1986. 3~현재 경북대 전임강사-교수
1998. 8~1999. 7 인문대학 학장보

정걸진 사회과학대학장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1953. 1 생
1978. 8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1986. 12 미주리대학 석사
1986. 12 미주리대학 박사
1990. 10~현재 경북대 전임강사-교수
2004. 9~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장

"학술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사업" 우수 대학도서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보화 활성화 방안(e-Campus VISION 2007) 및 대학정보화 사업에 본교 도서관이 참여하여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은 도서 단행본, 학술지 권호소장, 해외학술지 기사색인 DB 구축과 지식정보생

성 및 유통시스템 구축, KERIS 종합목록 품질 향상,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 교육인적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본교, 산학협력 기능 강화해 본부조직 개편

산학협력지원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우리 대학은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산학협력지원단을 신설하고 산학·연구지원과를 학술진흥과와 산학협력과로 분리하여 산학협력지원단 내에 설치하는 등 대학본부 조직을 개편했다. 산학협력지원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맡기로 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대학의 학술연구 진흥, 연구비 및 학술활동 지원, 산학협력 업무는 일괄 산학협력지원단 내에 집중되고 총장,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처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장회에 산학협력지원단장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교무처의 교무과와 입학관리과는 교무·입학과로 통합되며, 여학생들의 취업능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신설된다.

「KNU-만도 트랙」 실습생 수료식 개최

지난 2월 우리 대학과 (주)만도가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체결한 신산학협약에 따라 선발된 '경북대-만도트랙' 참여 학생들이 지난 하계방학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20일 실습수료식을 가졌다. 올 1학기에 선발된 20명의 전자전기컴퓨터학부·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지난 7월 5일부터 (주)만도의 평택, 원주, 익산사업본부 및 기흥 중앙연구소 등 4개 사업장에서 생산실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체험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실습교육을 받은 후 이듬해 졸업하는 대로 (주)만도에 취업하게 된다. 김달웅 총장과 관련 보직 교수 및 학과 교수들은 이날 (주)만도 군포 본사를



방문해 "경북대-만도트랙 생산기술실무과정"의 첫 수료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 (주)만도의 평택공장과 기흥 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본교, 인터넷종합상황실 개소



학내에서 사용되는 정보용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최근 우리 대학이 대학 주 전산기를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의 인터넷연결 상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지난 30일 열린 「주전산기 개통 및 인터넷종합상황실 개소식」에는 정보전산원 1층에 위치한 인터넷종합상황실과 새롭게 도입된 3테라바이트(1000기가=1테라) 용량의 주전산기가 공개되었다. 새로 도입된 썬마이크로시스템스사의 주전산기는 교육·연구를 위한 학사행정지원, 교

육실습지원, 연구용 계산지원, 인터넷지원 등에 쓰여지며 수강신청 기간과 같이 동시접속자가 많은 시간대에 서버가 다운 되었던 기존의 불편사항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서버, 네트워크, 보안등의 종합적인 인터넷 관리를 위해 인터넷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모니터링 및 콘트롤용 콘솔 PC 4대와 콘솔 웹스테이션 1대, IP-KVM 스위치 1대, LCD 프로젝션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회 영예장학생 선발

우리 대학이 재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해 신설한 영예장학생 제도로 올해 제2회 영예장학생 35명이 선발되었으며, 지난 2일 오후 2시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영예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년동안 5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35명의 장학생들과 학부모, 김달웅 총장 및 본부 보직교수, 장학회 이사진이 참석했다.



